“백신접종 확대… 코로나19 사망자 연초대비 크게 줄어”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지난 1월 143명 이후 지속 감소

1차 134만명, 2차 37만명 접종
백신물량 총 78.3만회 분 남아

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최근 백신 접종 확대로 연초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줄었다고 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월별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수를 보면 올해 1월에는 143명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후 50명대, 40명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며 “지난달 사망자수는 41명으로 연초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에 의해 고령층 확진자가 줄면서 사망률 자체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은 지난 1월 마지막주 3.3%에서 5월 말 0.6%로 2.7%포인트 감소했다. 금년 1월 24~30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806명 가운데 27명이 목숨을 잃어 사망률은 3.3%였고, 지난달 23~29일 서울시 신규 코로나 환자 1325명 중 8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0.6%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시는 7일 0시 기준 134만1990명에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시민은 36만6927명이다.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61만3300회분, 화이자 16만9746회분 등 총 78만3046회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6일 신규는 53건이고, 누적은 총 5279건(접종자의 0.3%)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 중 97.3%가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에 의하면 지난주(5월 30일~6월 5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412명으로 하루 평균 201.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는 2주 전(5월 23~29일) 일평균 확진자 수 189.3명보다 12.4명 증가한 수치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2주전 전체 확진자의 30.7%에서 지난주 29.9%로,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4.2%에서 10.1%로 각각 0.8%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증상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23%에서 23.4%로 0.4%포인트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다.

최근 1주간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직장 관련 146명 ▲교육시설 관련 47명 ▲카페·음식점 관련 2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25명 ▲복지시설 관련 16명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15명 ▲기타 집단감염 관련 13명 ▲종교시설 관련 8명 ▲가족·지인모임 관련 6명 ▲PC방 관련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송파구 소재 시장 종사자 1명이 5월 18일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달 5일까지 127명, 6일 8명이 추가로 코로나에 걸려 관련 확진자가 136명(서울시 환자 10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 종사자가 모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시장 내에 ‘상설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꾼다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
9억 투입 월 최대 320시간까지 지원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이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만 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9억원을 투입해 돌봄 공백이 생긴 고령장애인들이 월 100시간부터 최대 32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 총 33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대리신청 가능)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수온 28도 캐리비안베이로 바캉스 가요”

파도풀 등 야외 어트랙션 본격 가동

캐리비안 베이 타워 부메랑고. /삼성물산

캐리비안 베이 야외 어트랙션이 본격 가동한다.

에버랜드는 지난달 파도풀과 메가스톰에 이어 12일부터 타워부메랑고, 타워래프트, 아쿠아루프, 유수풀 등 야외 인기시설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서 26일에는 워터봅슬레이, 와일드블라스터, 튜브라이드 등의 스릴 어트랙션을 추가 오픈한다. 일부 스파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야외 물놀이 시설이 풀가동하는 것.

초여름 캐리비안 베이는 야외 시설 수온을 28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해 이른 바캉스 명소로 잘 알려져있다.

특히 올해 캐리비안 베이는 주요 편의시설과 이용 프로세스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올해 더욱 안전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운영중이다.

먼저 캐리비안 베이는 워터파크 업계 최초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 중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일이 지정된 입장권을 사전에 구입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방문일을 사전에 예약 후 이용해야 한다.

캐리비안 베이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역당국의 기준보다 수용인원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지하철 멀티비전 광고 1~8호선으로 확대

서울교통공사, 53개역 120대 운영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이용한 멀티비전 광고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멀티비전은 영상패널을 이어붙인 형태의 디지털 광고매체다. 그간 공사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33개역에 구축된 모니터 70대를 이용해 멀티비전 광고를 운영해왔으나 증가하는 디지털 광고 수요를 충족하고자 1~8호선 전체로 이를 늘리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멀티비전은 기존의 조명이나 포스터 형식의 광고보다 다양한 내용을 신속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다양한 광고주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어 공사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멀티비전 광고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멀티비전 운영 역사수와 광고 수량은 53개역 내 120대로 늘어난다. 공사는 디지털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광고 추세에 맞춰 모니터 사양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승강장안전문과 계단·통로 상단에 설치된 가로(—) 형태의 소형 LCD 모니터만을 이용했으나, 화질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LED 전광판이 추가로 도입된다.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ㄱ·ㄷ·ㅜ 등)와 화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역사 벽면과 기둥에도 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100 기념식 오늘 개최

서울시는 8일 오후 5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D-100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행사로, 서울시가 주최한다. 금년에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6일간 펼쳐진다.

이날 기념식은 1부(문화교류 협력식)와 2부(서울비엔날레 조형물 제막식)로 구성됐다. 1부 문화교류 협력식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지하3층)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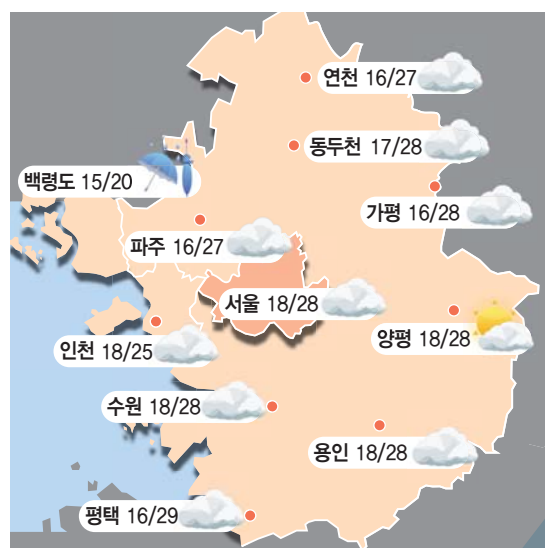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1 | 해짐 / 19:52

6월 8일 (火)
음력 : 4월 28일

수도권 날씨
18 ~ 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中 25세 실직男, 분노와 비관 속 묻지마 흉기 난동…6명 사망 14명 부상
▲ 40만명 찍었던 인도, 신규확진 두 달 만에 최저 /사진 뉴시스

▲ 반기문 등 세계 리더 230명 “G7, 최빈국 백신 지원” 촉구
▲ ‘국경 개방’ 이틀 앞둔 프랑스, 델타 변이 확산에 ‘긴장’

▲ 美 에너지장관 “인프라 법안 심사 시작…초당적 행동 희망”
▲ 옐런 美재무, 인플레·금리인상 초래해도 4조$ 지출 강행해야 /사진 뉴시스